

The Suffering Servant: Jesus Christ Isaiah 53

고난 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How many of you have ever had a complete paradigm shift?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하셨나요?

You had a huge, monumental
change in your thinking,

그 전환이란 생각이 크고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a change in your opinion,

change in your outlook in life?

의견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인생관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Throughout our life,

we all go through paradigm shifts.

우리의 삶을 통틀어

우리는 모두 패러다임 전환을 겪습니다.

In my life, I've had several paradigm changes.

저의 삶에도 패러다임 변화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My biggest change occurred when I was 12,

제가 12살 때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Before I was 12,

I arrogantly assumed I was a good person,

12살 되기 전에는

교만하게도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ut as I read the Bible,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And as I closely looked at God's law and His holiness,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거룩함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I finally realized and admitted,
저는 마침내 깨닫고 시인했습니다.

according to God's standard,
I am not a good person.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I confessed that I was a wretched sinner in need of a savior –
저는 구원자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so at the age of 12,

그래서 12살 때,

I came to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 couple of weeks ago,

몇 주 전

I told you about another paradigm shift I had about 15 yrs ago.

저는 15년 전 제가 겪은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As I read the Bible with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references,
제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비교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I was astonished to see that I had read the Bible egocentrically.

제가 성경을 자아중심적으로 읽어왔음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The Bible I realized was not about me, not about us ...

성경은 저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 came to realize that Christ is the center of all Scripture –.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Jesus is the fulfillment –

예수님은 성취입니다 -

the substance, the reality –

예수님은 본질이고, 실제입니다 -

to which the types and shadows of the Old Testament pointed.

구약성경의 예표들과 그림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Last week, I preached on the paradigm shift

지난 주, 저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the 2 disciples had on the road to Emmaus.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2명의 제자가 겪었던 패러다임 전환

They were initially blinded.

그들은 처음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But as Christ opened the Scriptures to them,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어 보여주셨을 때

they finally understood that all of Scripture --

그들은 마침내 모든 성경 말씀이

pointed to the Messiah – the Christ.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And they were astonished ...

그리고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They had a complete paradigm shift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OT.

그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하던 생각에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습니
다.

They finally recognized that it was necessary for their Messiah to suffer
and die to save sinners.

그들은 마침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메시아가 고난 받고 죽는 것이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And with that news,

그리고 그 소식을 받으면서

their hearts burned within them.

그들의 마음은 속에서 뜨거워졌습니다.

Now, before the 2 disciples had their paradigm shifted,

자, 2명의 제자가 패러다임 전환을 겪기 전에

they were actually rebuked by Jesus: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How foolish you are, and how slow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Did not the Messiah have to suffer ...?”
(Luke 24: 25,26)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 25,26)

Peter too was foolish and slow to believe the Gospel,
베드로도 미련하고 복음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였습니다.

In Matt. 16:21-23,
Jesus explained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 and ...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마태복음 16:21-23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Peter ...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Jesus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s of

God, but merely human concerns.” Matt 16. 21-23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21-23

Jesus rebuked Peter because he was discouraging the Gospel to come to fruition –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복음이 성취되려고 하는 것을 낙심시켰기 때문에 그를 질책하셨습니다.

But it was necessary for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Jesus to suffer, die and resurrect from the dead.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In fact, Jesus called Peter “Satan” because Peter opposed the Gospel.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음에 대적했기 때문에 그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He was anti-gospel at that moment.

베드로는 그 순간 ‘복음-대적자’였습니다.

Can you imagine, Jesus calling you Satan?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Trust me on this,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if Peter (one of Jesus’ closest disciples) could oppose the Gospel, 만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가 복음을 대적할 수 있다면, all of us need to be careful –

우리 모두는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we too

without even knowing it,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can oppose the Gospel and its spread,

복음과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can oppose Christ.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It's all a part of our sinful nature.

이것은 모두 우리의 죄 된 성품의 일부입니다.

We need to be careful with what we say, with our attitude.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May Christ never, ever call us "Satan."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I am ashamed to say that I can also relate to Peter being anti-Gospel.

저는 복음-대적자가 된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I can also relate to the two disciples – being slow to believe.

2명의 제자들처럼 마음에 더디 믿는 일이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Because 18 years ago,

왜냐하면 18년 전

Just like the 2 disciples

그 2명의 제자들처럼

I had not yet realized that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all the types and shadows of the OT pointed to Christ.

구약성경의 모든 예표와 그림자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So 18 years ago,

그래서 18년 전

when this young, exuberant pastor –

어떤 젊고 혈기 넘치는 목사님이

at a new Bible study I attended –

제가 나갔던 성경공부 모임에서

introduced us to the idea that types and shadows of the OT pointed to Christ,

우리에게 구약성경의 모든 예표와 그림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을 때

out of my arrogance, I was very slow to believe him.

저는 교만한 마음에서 그 목사님의 말을 매우 더디 믿었습니다.

You see, when you're arrogant –

자, 여러분이 교만할 때 -

when you think you know the Bible well –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

you assume you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you assume that you are right.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가정합니다.

And so, shifting your paradigm is often difficult and sometimes even painful – because, in a sense,

그래서 여러분의 패러다임 전환이 종종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 왜냐면 어떤 면에서는

you are admitting that you have been ignorant or
that the viewpoint you hold is wrong.

여러분이 스스로 무지했다고, 자신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nobody wants to admit they're ignorant,

누구도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길 원치 않아요.

nobody wants to feel like they're wrong.

누구도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And so because typology was new to me,

예표론이 저한테 새로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I actually approached the pastor after his lesson.

저는 사실 그 수업 후에 그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And I actually convinced him he was wrong.

그리고 그분이 틀렸다고 설득했습니다.

You see, the pastor was recently introduced to the concept of types and shadows and so he couldn't substantiate his teachings.

그 목사님은 예표와 그림자 개념을 알게 된지 얼마 안됐을 때여서

그 가르침을 확고히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And so, unfortunately, I had discouraged him.

그러므로, 불행히도 저는 그분을 낙심시켰던 겁니다.

And unfortunately because of my influence his Bible studies and his sermons never really focused on Christ again.

불행히도 저의 영향 때문에 그분은 성경공부와 설교에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In that incident, just like Peter, I was anti-Gospel.

그 사건에서 저는 베드로처럼

복음-대적자였습니다.

I was a stumbling block to the pastor.

저는 그 목사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습니다.

The devil, I believe, had used me to discourage my pastor from preaching Christ.

제가 믿기로는 마귀가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하게 낙심시키도록 저를 사용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you also must be careful –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

the devil can also tempt you to be anti-Gospel.

마귀는 여러분이 **복음-대적자**가 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Just as the devil did with Peter and me,

마귀가 베드로와 저에게 했던 것처럼,

he can use you to discourage people who desire to bring the Gospel to the nations.

마귀는 만국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도록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be careful** – as Peter warns us in 1 Peter 5:8, the Devil is like a roaring lion, ready to devour you.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8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Now, I must say, since my paradigm shift,

자,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에게 패러다임 전환이 있은 후

I have starkly seen the errors of my ways,

저는 제 방식의 잘못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I have humbled myself and have repented of discouraging that pastor.

저는 스스로를 낮추고 그 목사님을 낙심시켰던 일을 회개했습니다.

Thank God, however, that through God's redemptive plan,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통해

God is faithful.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He can still use crooked sticks like me – like me, like us -- to draw straight lines.

하나님은 여전히 저처럼, 우리처럼 구부러진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직선을 그으실 수 있습니다.

That is to say, that God can use sinners like us – sinners like David,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 다윗, 솔로몬, 베드로와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Solomon, Peter – to ensure his Redemptive Plan from Genesis to Revelation.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그분의 구속계획을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다.

Despite our evil intentions and sinful ways,

우리의 생각의 악한 것과 죄악의 길에도 불구하고

God is powerful and steadfast to carry everything out for good.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자애로우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Praise God, for His faithfulness lasts forev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신실함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찬양합니다.

Now last week I told you about my most memorable conversation with a religious, ultra-orthodox Jew who sat next to me on a Mehadrin Bus.

지난 주 저는 메하드린 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종교적이고 초정통적인 유대인과 나눴던 잊지 못할 대화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I went through the OT and pointed out to this Jewish man that Israel was consistently rebellious to God –

저는 구약성경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배역하였다는 것을 이 유대인 남자에게 지적하였습니다.

They repeatedly failed to believe God's message (His Promise, His Good News),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좋은 소식)를 믿지 못했습니다.

they continually rejected the message of God's prophets and so they failed to repent and believe in the Good News of God's promises;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거부하였고

회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한 좋은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and likewise the Jews would also reject their Messiah as prophesied in Scripture.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And then, like Jesus did to the 2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그 다음 예수님께서서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I too went through the OT and shared how -- the Messiah as Savior -- is found throughout the Tanakh.

저도 구약성경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타나크 (Tanakh)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I finally invoked Isaiah 53 to show that it was necessary for the Messiah to suffer to justify the many.

저는 마침내 이사야 53장으로 메시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고난 받아야 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And unlike the many Jews I had shared the Gospel with in the past, this particular Jew was astonished – his eyes widened –

제가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유대인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he completely agreed with what I proclaimed.

그는 제가 선포한 내용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Yes, he said, Zot Ha Emet! Zeh NaKhon!

그래요, 그는 말했습니다. 조트 하 에멧! 제 나콘!(Zot Ha Emet! Zeh NaKhon!)

You are right!

당신 말이 옳습니다!

I could tell he was enthused.

저는 그가 열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Our history is full of rebellion, idolatry and disbelief.

우리의 역사는 반역,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We have repeatedly rejected God's prophets and His message.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Could we have also rejected more than we know?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Before I got off the bus,

he gratefully thanked me for what I had taught him.

제가 버스를 내리기 전

그는 제가 가르쳐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see, as I opened the Scriptures to him,

여러분, 제가 그에게 성경을 열어보여주었을 때
he too went through a complete paradigm shift –
그 사람도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겪었습니다.

just like the 2 disciples,
2명의 제자들처럼

He realized that it was necessary for the Jewish Messiah to suffer and die
to save sinners – both Jew and Gentile.

그는 유대인의 메시야가 죄인들을 -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
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And with that news,
그리고 그 소식을 받고는
his heart burned within him.
그의 마음은 속에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Now in our passage for today,
이제 오늘 성경구절에서
The Ethiopian eunuch also has his heart burn within him.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습니다.

In Acts 8:30-33:

³⁰ Then Philip ... heard the man reading Isaiah the prophet.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³¹ “How can I,” he said, “unless someone explains it to me?” So he invited Philip

³² The ... eunuch was reading:

“He was led like a sheep to the slaughter....

³³ In his humiliation he was deprived of justice....
For his life was taken from the earth.”

In Acts 8:30-33:

³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³¹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³²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³³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Do you know where the passage that the eunuch was reading from?

여러분은 이 내시가 어떤 말씀 구절을 읽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It comes from Isaiah 53.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In Acts 8 from vs. 34-35:

사도행전 8장 34-35절입니다.

³⁴ The eunuch asked Philip, "... Who is the prophet talking about...?"

³⁵ Then Philip began with that very passage of Scripture preached the good news about Jesus.

³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³⁵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But Philip didn't stop with the Ethiopian eunuch,

하지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대화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he continued to preach the Gospel.

빌립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In vs. 40,

But Philip ... as he passed through he continued preaching the Gospel to all the cities until he came to Caesarea.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So if we look at both vs. 35 and vs. 40,

그래서 만일 우리가 35절과 40절을 모두 살펴보면,

preaching Jesus is preaching the Gospel and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preaching the Gospel is preaching the Good News.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So for us who claim to be preachers,

그러므로 설교자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preaching a sermon from Isaiah 53 correctly means you preach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정확히 설교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In fact, correctly preaching every chapter,

실제로 성경의 모든 책, 모든 장을 정확히 설교한다는 것은

every book of the Bible means you preach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from all the texts of the Bible.

성경의 모든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In last weeks Bible study after church,

지난 주 예배 후 성경공부에서

we looked at an intro to Romans –

우리는 로마서 도입부를 살펴보았습니다.

in the handout we received, it states, that in his Roman letters Paul speaks

성경공부 자료에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of the Good News, the Good News of Salvation, the Good News of Jesus
구원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Christ, and the God's son, and the Good News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
다.

And that's what Philip does too.
바로 그 일을 빌립도 하고 있습니다.
He preaches the Good News.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By the way, I want to encourage you to come out to the Romans Bible
studies.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 성경공부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I know personally myself.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I have read the book of Romans several times.

저는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Every time I go through the book, there is huge enlightenment, I learn so
much.

로마서를 살펴볼 때마다 커다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배
웁니다.

It's so deep.

이 서신서는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It's one of my favorites.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So I want to encourage you to do the same.

그래서 여러분도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시라고 권합니다.

And I've heard of other churches that have gone through Romans.

그리고 저는 로마서를 공부한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The church completely changes.

교회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The people have more passion for the Gospel

사람들이 복음에 더 큰 열정을 갖습니다.

People com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사람들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And I've seen people in this church, for example,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면

Elder Keum and Deacon Kim go through the book of Romans and their understanding have very much deepen.

금 장로님과 김 집사님의 경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음이 아주 깊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I want to encourage all of you to go through Romans after the church service.

저는 여러분 모두 예배 후에 로마서를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hilip opens the Scriptures and he preaches the good news of salvation, 빌립은 성경을 펴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 good news of grace through Isaiah 53.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은혜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And just as the 2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the Ethiopian **eunuch's eyes** are opened.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의 눈이 열립니다.

He has a complete paradigm shift.

그는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합니다.

He realizes that it was necessary for the Jewish Messiah to suffer and die to save sinners.

유대인의 메시야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His heart burns so much within him to the point where he wants to be baptized at the first sight of water.

그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진 나머지
그는 물웅덩이를 보자마자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And what is the result?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나요?

The Ethiopian eunuch goes home, rejoicing.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뻐하면서 집에 갑니다.

You see, once your paradigm shifts –
자, 일단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면
Once you understand and believe the Gospel,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다면
you too will rejoice.
여러분도 기뻐할 것입니다.

Do you want to rejoice?
여러분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Do you want to glad?

여러분은 즐거워지길 원하십니까?

Then just as the Ethiopian eunuch, and just as the 2 disciples,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두 제자들처럼

Let us hear the Gospel and
believe the Gospel, and in response –
우리도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읍시다.

may you rejoice!

그러면 그로 인해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 겁니다!

In our passage,

오늘 말씀 구절에서,

the Ethiopian eunuch reads a messianic passage of the Suffering Servant
from Isaiah 53.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는 종,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
습니다.

Isaiah 53:1 states,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And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Isaiah 53:1

이사야 53:1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1

What does this mean?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This passage at first glance is a bit vague.

일핏 보면 이 말씀구절은 약간 모호해보입니다.

Whenever you read a passage from the Bible and you don't understand what it means, what do you do?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절을 읽고 그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How can you get to the meaning of the passage?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Well, what you shouldn't do is ask yourself, what does it mean to yourself?

그럴 때 해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곧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뜻인가를 질문해선 안 됩니다.

I remember attending a Bible study at a mega church and the young Bible study leader – you can tell – had no training.

제가 어떤 대형 교회에서 성경공부에 참석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성경공부를 이끈 젊은 리더는 전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She really didn't know her Bible well and we would read the Bible together and 그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고 성경을 함께 읽을 때마다 after almost every verse, she would ask people, 거의 모든 구절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What does this passage mean to you?”

“이 말씀구절은 당신에게 어떤 뜻인가요?”

Everyone gave various answers.

모두가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And I remember there were 2 non-Christians in the Bible study,

그리고 그 성경공부에 비그리스도인이 2명 있었습니다.

They -- wanting to participate -- also shared their answer.

그들도 참여하려는 마음에서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Their interpretation was clearly wrong – almost heretical,

그런데 그들의 해석은 명백히 잘못되었고, 거의 이단적이었습니다.

but because of the mood our BS leader had created --

하지만 그 성경공부 리더가 조성해놓은 분위기 탓에

our BS leader just accepted everyone's answer as correct.

그 리더는 그저 모든 사람의 대답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o be careful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the Bible is not like a post-modern poem, we take subjectively –

성경은 주관적으로 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와 다릅니다.

the Bible does not allow you like a poem to pour a personal meaning into the text – to suit yourself.

성경은, 시를 읽고 각자 자신에 맞는 의미를 투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됩니다.

No, the Bible should be read as the author – God – had intended.

아닙니다. 성경은 저자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읽혀져야 합니다.

Luckily, we can see how Isaiah 53 was intended because the NT makes several references to this passage.

다행히도, 신약성경에서 구약의 이 구절을 여러 번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53장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If we take a look at

신약성경에서 이사야 53장을

A Few Direct Quotations from Isaiah 53 in the New Testament

직접적으로 인용한 몇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John 12:37-38

Matthew 8:16-17

Mark 15:27-32

Acts 8:26-36

Romans 10:16-17

1 Peter 2:21-25

요한복음 12:37-38

마태복음 8:16-17

마가복음 15:27-32

사도행전 8:26-36

로마서 10:16-17

베드로전서 2:21-25

The writers of these passages are Apostles that were inspired by God.

이 구절을 기록한 기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They give us deep insight to what Isaiah 53 means.

그들은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통찰력을 전해줍니다.

In light of these clearer passages in the NT,

we can go back and see what God is revealing to us in Isaiah 53.

이렇듯 좀 더 뜻이 분명한 신약성경 구절에 비춰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This Protestant Reformation method of using clearer passages to unravel the meaning of more difficult passages is
이 개신교 개혁신앙적 방법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정확히 알기 위해
좀 더 분명한 말씀을 사용하는 것으로
the principle of 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You can do this easily by looking at the **cross references** in the margins of your Bible.

여러분은 성경의 여백에 쓰인 **관주/주석**을 보면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As you can see, vs. 1 is quoted in John 12:38 and Rom. 10:16 by both John and Paul, respectively.

1절은 요한복음 12:38절과 로마서 10:16절에서 각각 요한과 바울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By looking at how they interpreted the text – this is actually a picture of my bible here and this is how I knew that in verse one can draw from John
사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진은 제 성경책인데, 저도 이 참조 구절을 통해 요한복음 12:38, 로마서 10:16절에 이 구절이 있음을 압니다.

12:38 and Rom. 10:16. By looking at how they interpret this text, we can find out what this passage means.

신약성경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So let's go to **John 12:37,38.**

자, **요한복음 12:37, 38절**을 봅시다.

Isaiah had foretold, men refused to believe the Messiah, regardless of His signs

이사야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고 거절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only a small handful of people would come to see the Arm of the Lord is a sufferer who is despised and rejected.

소수의 사람들만 이 '여호와와 팔' 되신 분이 멸시 받고 거절 당한 고난의 메시아로 나타난 것을 보려고 왔습니다.

Let's also go to Romans 10:16.

로마서 10:16도 살펴봅시다.

Paul shows how the Jews who disbelieved the gospel fulfilled the statement in the verse: "Who hath believed our message?"

바울은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 이 구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Why is it only a small handful of people would come to see the Messiah as a sufferer who is despised and rejected?

멸시 받고 거절 당한 고난 받는 분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려는 사람들이 왜 몇 안 되는 것일까요?

Because to humankind –

왜냐면 인간에게는 -

remember, I told you that the Gospel is counterintuitive to us -- to humankind,

복음은 인간의 직관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Gospel "manna" from heaven is "what is this?"

복음 곧 하늘로부터 온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나"로 불렸습니다.

We say, "What is this?" because it's hard teaching – Hard to believe, it's a message we cannot understand or

우리는 가르침이 어렵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believe on our own,

only by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who works faith in our hearts,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can we come to accept and understand and trust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을 받고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That is why, without the Holy Spirit, it is an alien message –

그 때문에 성령님 없이는 복음은 낯선 메시지입니다.

Gospel is not man’s wisdom –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so even our greatest philosophers, our greatest sages can never conjure it up on their own.

위대한 철학자, 현자들도 스스로 복음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And that’s why it has to come down from Heaven – from God –

From God to us – Emmanuel –

그 때문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왔습니다.

He is the true manna that comes down from Heaven.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만나입니다.

And because Gospel is not man’s wisdom,

그리고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but an external, alien message, Gospel is a message that is –

외부에서 온 낯선 메시지이기 때문에

hard for us to accept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It’s unbelievable –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믿을 수 없는 것이며

scandalous to the Jew and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foolish to the Greek (the Gentile),

그리고 헬라인(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But to both Jew and Gentile –

하지만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the Gospel is like a mystery – a paradox.

복음은 비밀과 같습니다. 패러독스(역설)입니다.

Paul highlights this paradox **2 Corinthians 8:9,**

바울은 이 패러독스(역설)을 **고린도후서 8:9**에서 강조합니다.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2 Corinthians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9

This passage is unbelievable!

이 말씀은 믿을 수 없을만큼 놀랍습니다!

It's unbelievable to us that the rich would volunteer to become poor –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랍습니다.

to live in poverty –

가난하게 사심으로써

so that the poor could become rich.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If I were Bill Gates and I came to you and said,

만약에 제가 빌 게이츠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Let me give you all my money so that you can become rich and so that I can become poor – That would be foolish.

- 내 돈을 모두 당신에게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고 나는 가난해질게요. -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You would think I'm crazy.

여러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요.

But that's what Christ – the King – did!

하지만 왕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He became poor -- a suffering servant -- for us.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고난 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And it is by this foolishness –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at least foolishness according to the world –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일을 통해

God's foolishness outsmarts the wise.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운 자를 이기십니다.

God's foolishness is wiser than the wisest of philosophers and sages.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가장 지혜롭다는 철학자와 현자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1 Cor. 1:25 says,

For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human wisdom,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human strength. 1 Cor. 1:25

고린도전서 1:25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

니라 고린도전서 1:25

Through His weakness, His suffering,

그의 약함, 고난 받음을 통해

the highly despised one

지극히 멸시 받은 그 분은

will be the highly exalted one

가장 높임 받는 분이 될 것이고
who will sprinkle the nations.
만국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That doesn't make any sense for us human beings.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It makes sense for us, if the strong is exalted over the weak.
만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높임 받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In the news,
we often see the strong victorious over the weak.
우리는 뉴스에서 간혹 약한 자를 이긴 강한 자의 승리를 보곤 합니다.
that's the daily news.
그것은 일상적인 뉴스입니다.
We're used to that.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When the strong defeats the weak,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길 때는
there's no surprise there.
놀랄 일이 전혀 없습니다.

And yes sometimes the weak gain victory over the strong.
그리고 때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We have those stories too.
우리에겐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We call them Cinderella stories.
그런 이야기를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We love those stories.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But ... what about this?
하지만... 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The strong becoming weak

강한 자가 약하게 되는 것

in order to save the enemy

원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who was trying to kill him – that's the strangest story ever told.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위해서 - 이것은 가장 이상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One man's obedience substituting for the sins of the many?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말인가요?

Come on? You got to be kidding? That's unrealistic!

잠깐만요. 농담하시는 거죠?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And indeed it's been unbelievable to just about everybody –

그리고 정말로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일입니다.

It was unbelievable to the Jews of Jesus' day and to Jews today.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오늘날 유대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In fact, it has been unbelievable to even many "Christians."

사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도 믿기 힘든 일입니다.

During the Enlightenment,

계몽시대 때,

Emmanuel Kant argued,

엠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one person cannot substitute himself for another.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Charles Finney, rejecting the substitutionary atonement of Christ,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aid that you can't have one person dying for another person.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In fact, all the religions of the world would agree with Kant and Finney.

사실상, 세상의 모든 종교는 칸트와 피니의 말에 동의할 겁니다.

All the religions teach karma –

모든 종교는 카르마를 가르칩니다.
you get what you deserve.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는다.
You do the crime, you do the time.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야 한다.
This is Law,
이것은 율법입니다.
this is the wisdom of man.
이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But, under the Gospel, what does the Bible say,
하지만 복음 아래에서 성경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in Romans 5,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Christ died for the ungodly.⁷ Very rarely will anyone die for a righteous person, though for a good person someone might possibly dare to die.⁸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 5:6-8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6-8

Christ died for the ungodly,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Christ died for the unrighteous.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In the second half of Isaiah 53:1,

이사야 53:1절 후반부에서

It mentions **The Arm of the Lord**

여호와와 의 팔을 언급합니다.

Unfortunately, – as was prophesied -- most Jews would fail to recognize The Arm of the Lord.

불행히도 예언된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은 ‘여호와와 의 팔’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That is why it says,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그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What does the Arm of the Lord mean?

여호와와 의 팔은 무슨 뜻입니까?

If we apply the principle of Scripture interprets Scripture,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we go to **Isaiah 59:16**,

이사야 59:16절을 찾아봐야 합니다.

He [the Lord] saw that there was no one,
he was appalled that there was no one to intervene;
so his own arm achieved salvation for him,
and his own righteousness sustained him. (Isaiah 59:16)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 59:16)

The context is about salvation,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the Lord saw that there is no one ...

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Isaiah is quoting from Psalms 14:1-3)

(이사야는 시편 **14: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no one is without sin,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not even one – because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No one could intervene for sinners

죄인들을 위해 중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because all sinned and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a sinner cannot pay the penalty for another sinner –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a debtor cannot pay the debts of another debtor.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의 빚을 갚아줄 수 없습니다.

so God Himself (who is righteous and holy, holy, holy) stretched out His Arm – that is,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로우시고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팔을 펴셨습니다.

it was necessary for Him to come down to us and rescue us.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셔야 했습니다.

And that's what Christ did.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He did it for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Praise God, for His own Arm achieved salvation for us!

여호와 자신의 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God for the suffering servant!

고난 받는 종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